

“아는 데 집착하면 반드시 마가 침입하니...”



원로 언론인 이규형이 쓰는

달마 이야기



(49) 계란건곤(鷄卵乾坤)

해가는 계속해서 스승에게 질문했다. “육적(六賊)이 주인공을 혼탁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육적이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아니더나. 본래 이 육적의 주인공은 마음이니라. 마음은 크고 작은 마군(魔軍)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느니라. 마음은 원숭이같이 번덕스럽고 뜻(意)은 말(馬)처럼 날뛰는 말도 이래서 생겨났느니라. 마음은 경계(境界)를 마음대로 넘나들며 하늘에까지 치솟기도 하느니라. 이럴 때는 천병천장(天兵天將)이라고 할지라도 제압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그런 마음, 곧 마군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성(本性)으로 돌아가 정과(正果)를 이루고 귀일(歸一)해야 하느니라. 이때 관음주(觀音呪)를 외워도 효험이 있느니라.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현묘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잡아매어 다스리는 것이 요체이니라. 육적 가운데서 의마(意馬)를 특히

항복시켜 주인공을 지켜 주느니라. 이렇게 되면 천요만괴(千妖萬怪)가 일제히 명령에 복종하고 지지정정(知止定靜)으로 천하(天下)가 평온해질 것이니라. 팔대금강(八大金剛)이 관문(關門)을 잡고, 사천왕(四天王)이 사문(四門)을 지키며 모든 진인(眞人)이 항상 보살피 지켜 줄 것이니 주인공은 연심(蓮心) 자리에 앉게 되느니라. 이때 주인공은 단지 하늘 북 소리 울리기만 기다렸다가 행차하면 되느니라.”

달마의 소상한 설명에 해가는 마음이 한층 밝아움을 느꼈다. 또 다시 없으려 배례(拜禮)했다.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쭙는 것이니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일컬어

가 여기 있는데 어찌 문 밖으로 나가 만나고자 하는고.”

달마의 계승은 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해가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스승에게 고개 숙여 간곡하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는지 고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인공 만나는지

달마는 다시 계승을 물었다. “하늘(天)에 통하고 땅(地)을 꿰뚫으니 금목(金木)이 고합(交合)하다. 영아(嬰兒)와 타녀(姪女)가 서로 도우니 한 마리 황룡(黃龍)에 올라타도다. 바다를

貪瞋癡愛는 안에서 마군을 돕고 酒色財氣는 밖에서 마군 돕는다

해가의 마음 한층 밝아져

팔 다스려야 하느니라. 본성에 귀의하여 서천(西天)으로 가려면 이 의마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 의마가 곧 용마(龍馬)이니라. 만약 본성을 뒤야 바르게 귀일하지 못하면 의마 곧 용마가 날뛰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느니라. 이 말은 하늘 끝까지 달리면서 날뛰어도 제지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다름 아닌 마군이니라. 마군 가운데서도 눈·귀·코·혀는 장군 구실을 하느니라. 이들은 무슨 소식이 있게 되면 사문(四門)으로 달려나가 소란을 피우느니라. 이때 탐진치애(貪瞋癡愛)는 안에서 마군을 돕고 주색재기(酒色財氣)는 밖에서 마군을 돕느니라. 안과 밖이 상응하여 주인공의 자리를 뺏으니 칼과 창과 화살이 어지러이 쏘이는 형국이니라. 만약 주인공의 자리를 진정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진인(眞人)에게 없으려 간청하여 용정(龍庭)에 좌정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관음과 부처가 법술(法術)을 베풀고 삼교(三敎)의 성인(聖人)이 하늘의 무상인(無相印)을 빌어 사요(四妖)를 내쫓고, 진경(眞經)으로 육적을

기사동정(起死動靜)이라고 하고 왜 그것을 생사(生死)의 근원이라고 하는지요?”

달마는 즉답 대신 계승을 물기 시작했다.

“기(起)란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곳에선 강물이 뒤집히고 바다가 요란하다. 낙(落)이란 떨어지는 것이니 떨어지는 곳에서는 허공(虛空)에서 산신이 부서지기도. 동(動)이란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이는 곳에서는 열쇠도 자물쇠를 여는 것 같도다. 정(靜)이란 고요이니 고요한 곳에서 홍동(洪洞)이 열려 세상이 생기기도. 무상성공(無相成翁)을 조건(照見)하니 불로(不老)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도다. 무생지상(無生地上)에 안연(安眠)하니 반달(半月)의 노중(月中)에 자재(自在)하다. 세상에 내려온 지 몇 해인지 모르니 내력(來歷)과 시종(始終)도 모르도다. 뒷이때 이름이 금강불과(金剛不壞)라고 했으니 나가고 들어올 때 자취조차 볼 수 없도다. 그때의 미타 부처

견내고 산을 넘으니 드디어 극락궁중(極樂宮中)에 이르도다. 무극(無極)계 참배하니 보경천궁(普慶天宮)에서 즐거이 지내도다.”

계승이 끝나자 촌각(寸刻)의 여유도 없이 해가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는 무극은 자연 그 자체의 그 지리가 아니온지요? 그리고 자연의 그 자리에 이르면 자기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또박또박 간략하게 대답했다. “자연의 그 자리에 이르면 황홀한 가운데 그 무엇이 있으며, 아물아물한 가운데 정(精)이 있느니라. 음양합병을 알 수는 있으나 알지 못한 자처(自處) 되어야 하느니라. 동(動) 가운데 정(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는 데 집착하면 반드시 마가 침입하게 되느니라. 지혜있는 자는 깨닫기 쉬우나 미대한 자는 행하기 어려우니라.”



◁범주(凡周) 백중구거사(白中, 1932-)의 달마도(2001년 작).

달마의 대답은 수행의 진경에 따라 지켜야 할 심오한 계율을 고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가는 머리를 숙인 채 한동안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잠잠히 앉아 있었다. 한때 갑자기 머리에서 묘한 의문이 떠올랐다. 스승의 표정을 힐끔 살폈다. 혹시 쓸데없는 질문을 하여 핀잔을 들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마의 얼굴은 자애롭기 그지없었다. 무엇이든 물으면 모두 받아들일 것 같았다. 해가는 용기를 내서 기묘한 질문을 했다.

“스승님, 달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계란건곤(鷄卵乾坤)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겨우 생각해 낸 것이 그런 질문이더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수수께끼로 삼고 있는 그런 질문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니라.”

달마는 해가에게 앞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면서 대답을 이었다.

“혼돈(混沌)의 시기에는 달도 달걀도 없었느니라. 청탁(淸濁)의 이기(二氣)가 혼돈 속에서 한 덩어리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극의 본체이니라. 자시(子時)가 되면 일양(一陽)의 성(性)이 동(動)하여 청기(淸氣)의 느낌이 있게 되니, 달걀의 흰자위가 그것이니라. 축시(丑時)가 되면 이음(二陰)의 명(命)이 동하여 탁기(濁氣)의 영(靈)이 통하니 달걀의 노른자위가 그것이니라. 음과 양이 교합(交感)

하면 이기(二氣)의 영이 통하여 무극에서 태극(太極)이 생겨나느니라. 하루 아침에 홍몽이 열리면 혼돈이 생겨나니 이것이 태극에서 양의(兩儀)가 생기는 것이니라. 이때 달걀에서 닭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달걀이 먼저고 그 뒤에 닭이 있는 것이니라. 이 이치를 분명히 안다면 천기(天機)를 아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라.”

해가는 마치 어리광하듯이 물었다. “염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본성(本性)이니라.”

“본성을 제외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광(靈光)의 발현(發現)이니라.”

“그것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24시간 하루 온종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쌍림수(雙林樹)에 있느니라.”

“만약 태허공을 찢어 깨어 버리면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까?”

“허공을 깨어 버리면 건곤삼계(乾坤三界)를 뛰어넘어 나가느니라.”

“삼계란 무엇입니까?”

“동토(東土)의 사바세계, 서천(西天)의 극락세계, 선천(先天)의 무극세계이니라. 이 가운데 선천의 무극세계만이 오직 모든 남의 본래 고향이니라. 동토의 중생은 너무나 미대하여 사바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느니라. 서방 극락세계로 가고자

하면 자성(自性)을 밝혀야 하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니라.”

“서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만팔천리(十萬八千里) 밖에 있으니, 그 곳엔 분명 극락궁이 있느니라. 그러나 깨닫고 보면 서방은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오직 미대한 인간만이 그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항시(恒時) 어디에 귀의하여야 하는지요? 경(經)을 독송한다면 어느 경이 좋습니까?”

“무봉탑(無縫塔)에 귀의하여 무자경(無字經)을 묵념(默念)하도록 할지어다. 입을 열면 신기(神氣)가 흩어질 것이고, 조용히 입 속으로 영송하면 법륜(法輪)이 돌아갈리다.”

“무봉탑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봉탑이란 자기의 진보(眞寶)이니 자기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몸 밖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몸 안에 사리자(舍利子)가 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하느니라. 빛 나는 자는 하늘로 날고, 청개구리는 뒷발을 벗고 나무 위에 앉아 있으니, 죽은 자는 산 자를 의탁하여 달리고, 모기가 저울추를 매달고 들어온다는 ‘예화(例話)’ 등은 그것을 이르는 것이니라.”

“삼심삼회(三心三會)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眼)은 과거심(過去心)이니 연등불(燃燈佛)의 연지회(蓮池會)이니라. 귀(耳)는 현재심이니 석가불의 영산회(靈山會)이니라. 코(鼻)는 미래심이니 미륵불의 안양회(安養會)이니라.”

“삼천대천(三十大千) 세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과거불이 관리하는 천하홍분(天下紅粉) 세계와 현재불이 관리하는 천하사바 세계와 미래불이 관리하는 천하청담(天下靑淡) 세계를 이르는 것이니라.”

달이 먼저냐 달걀 먼저냐

대답을 마친 달마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짧은 계승을 한 수 읊었다.

“무쇠 아이는 나이가 맞이면고, 무정무진(無情無盡)인데 언제 쉬고, 한 번 소리 지르니 천지도 놀라고, 건곤사부주(乾坤四部洲)도 진동(震動)하네.”

해가는 스승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사자경(四字經)이니 육자경(六字經)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은 그 옛날 문수보살이 석가세존에게도 했었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사자경이든 육자경이든 간에 그것은 법문(法門)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느니라. 초회(初會)에는 네 글자로 공경(公卿)들을 유인했고, 이회(二會)에는 여섯 글자로 현인(賢人)을 이끌었으며 삼회(三會)에는 십자(十字) 곧 열 글자로 못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라.”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취하기가 바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매명, 간염, 간경화, 약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강신작용, 골절성, 절경,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학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오루통, 경자결립,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주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뚱이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약 효험이 있다.

환자바우치는 스님
오늘도 衆生 災難과 佛으로 奉行하시는 스님
저적인 몸과 眞心을 山蔘 長腦로 다스리 세상에 眞實사유기을 斷斷드려오며 山蔘로 모든 가지 부담으로 비쳐 질병 기피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眞心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원천에 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 (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윤의상당 (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희욱(동국대), 허경우(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진영(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 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허가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추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 756-7258